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맹신(盲信)과 반야(般若) 사이

“고니시 장군은 왜군 중에서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늘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조선의 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조선군과 맞섰습니다. 이순신은 어찌했나요? 그가 과연 주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을까요? 고니시가 비록 왜장이지만 순교로 피를 흘리러 왔는데 그에게 칼을 들이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 글은 국내 유명 교회인 여의도 S교회 신앙상담 게시판에 실렸던 글이다. 현재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이 글은 종교적 맹신(盲信)의 한 단면을 보게 해 쓸쓸함을 금할 수 없다.

특정 교리에 대한 신앙은 교단내 신도들에게는 당연한 믿음으로 여겨지겠지만, 타신도에게는 전도몽상(顛倒夢想)일 수 있다. 자기 종교의 색(色)에 갇혀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색깔을 분별하는 어리석음이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려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강조한다. 삼계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어야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맹신의 위험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구약 성경에 나왔듯이 아브라함의 한 핏줄로 민족과 풍습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유대교, 개신교, 그리스도교가 충돌하는 중동의 화약고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자기 종교의 신념만을 절대시하는 맹신과 교만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약속과 축복의 땅이라는 성서의 예언을 믿는다. 하지만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와 이라크도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슬람 제3의 성소(마흐메드)가 승천한 곳이기도 하다.

종교는 자비와 사랑, 평화를 주장하지만 자기 종교만의 맹신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다. 사랑, 신용, 신앙 등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은 삶의 구성 요소다. 하지만 지혜없는 믿음은 사회와 종교, 사람을 해친다.

반문하고 싶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수 유대교에서 “원수에게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주라”며 ‘사랑’을 실천 예수님. 그 분의 눈에 조선인을 확실한 고니시 장군은 어떻게 비칠까. 여실지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6

인타발 실시간 현대불교 불교포탈 부다피아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점 여시어문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http://ad.buddhapia.com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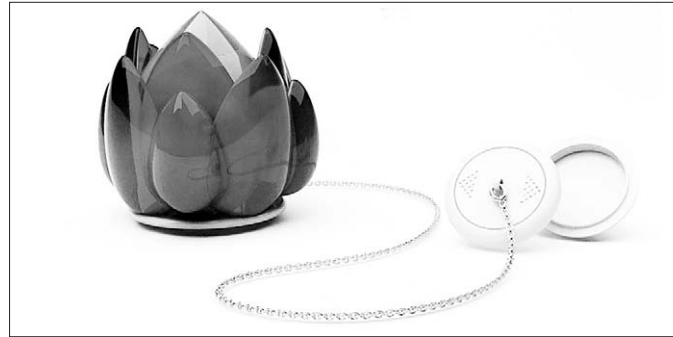
12일 시상식... 불교정서·실용성 갖춘 우수상품 늘어

‘나’와 ‘나의 것’,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공(空)의 종교인 불교. 자칫하면 공리공론(空理空論)에 치우쳐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불교의 정법은 색(色)에도 집착하지 하고 공(空)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를 설파한다. 물질문명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물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안다.

그런 점에서 불교문화상품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전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전법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대상에 연꽃을 응용한 옥조마개 ‘연지(蓮池)’를 시상했다.

Odd Eyes오드 아이즈팀이 출품한 ‘연지’는 물 위에 뜬 연꽃을 표현한 옥조마개로, 마개부분에 입욕제를 넣을 수 있게 했다. 출품자들은 “옥조마개로 쓰임과 동시에 물 위로 연꽃이 떠오르도록 해 마치 사찰에 간 듯한 편안한 느낌을 디자인 했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현대적 감각과 불교적 정서를 잘 표현했고, 실용성을 겸비한 점을 높이



제2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옥조마개 ‘연지’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우수상(2명)에는 김종규씨의 ‘천은사의 아침 연꽃’, 이신우·방준혁씨의 ‘목탁경’이 선정됐다. 장려상(5명)에는 조순애씨의 천연염색을 이용한 템플스테이 기념상품, 조희봉씨의 ‘풍경의 빛과 소리’, 양주은씨의 ‘내 마음의 템플스테이’, 원영환씨의 ‘산사’, 장미영씨의 단청문양 액세서리가 수상했으며, 그 외 특선 10명, 입선 17명이 선정됐다.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수상작은 목적에 맞게 가공돼 불교용품 및 불교문화상품 사업에 적극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등 우리나라 문화상품 관련사업 육성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

이 후원했다.

중훈 스님은 “내외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한국불교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나온 우수한 불교문화상품들이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립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2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는 모두 230명이 응모해 문화상품과 디자인 부분에서 모두 263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예년에 비해 집적인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은 이번 수상작품들은 1월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시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 어린이법회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

‘불교입문 강의지침서’도 펴내

‘어린이 집중 포교’ 3년차에 접어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사찰 어린이법회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을 발간했다.

<우리들의 부처님>은 부처님일대기를 기본으로 육바라밀, <부모은중경> 등을 추가했다. 또 법회 때 어린이와 지도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원 뒤에는 ‘놀이 배우며’ ‘익히기’ 등을 실었다. 안국선원(원장 수범)과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의 포



교 후원기금으로 제작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동성)은 <불교입문 강의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신도기본교육교재 <불교입문>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강사들에게 통일적인 교육 방침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02)2011-1891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4일 신년 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6개 종단 대표와 지도자, 신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승풍실추 사건에 엄정 대처

조계종 호법부장, 기자회견서 자정 원칙 강조

“수행 기풍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조계종 호법부가 최근 일련의 승풍실추 사건과 관련, 교단자정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마곡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법주사, 쌍계사 등에서 발생한 금품수수와 폭력, 도박 등 승풍실추 사건에 대해 종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곡사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정만 스님은 “8일 개최한 마곡사 관련 간담회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만 스님은 前 호법부장 심우 스님의 노스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종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호법부의 징계안 회부에 따라 1월 16일 심판부를 개정해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등에 대한 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온누리에 수행·희망·행복의 향기를!”

조계종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시무식



조계종 소임스님과 종무원들은 1월 5일 시무식을 갖고 불교종흥을 서원했다. 사진제공=조계종

2009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은 중앙총무기관과 산하단체 전 종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종흥을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무원조합 원우회 김한일 위원장을 비롯한 200여 종무원들은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 모여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무원 모두가 새해를 맞아 마음밭 농사를 더 잘 짓기를 바란다”며 “마음에 있는 무명초를 뽑아내고 보리수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기꺼운 한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성우 기자

봉축위,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과 의미를 알릴 수 있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5월 2일) 표어를 공모한다.

표어는 10자 내외로 △고해 중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뜻을 알리는 내용 △경제안으로 어려운 국

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을 격려하거나 포교와 관련한 내용 △동체대비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

하는 내용(생명존중, 생태환경, 인류평화 등) 등을 담아야 한다. 참고로, 역대 봉축표어는 ‘마음청정 나라청정’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등이 있다.

마감은 1월 20일. 당선작에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744, kang@buddhism.or.kr

김성우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호암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2009년 1월 10일부터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2009년 3월 2일 월요일
- ◇교수진: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법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포럼

◆ 교수: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2009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개 강: 2009년 3월 5일 목요일